



북부소방, 주민대상 비상소화장치 교육

광주 북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소화장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전통시장, 주택 밀집 지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의 실제 사용법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비상소화장치함 구성품 이해 △119 신고 및 화재 시 대피 요령 △호스 릴 장치 사용법 등이며, 오는 31일까지 지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55개소를 활용해 진행된다.

황인 북부소방서장은 “비상소화장치는 단순한 장비보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 마을을 지키는 주체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소방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남부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남문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남부경찰서, 남구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10여대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 통학버스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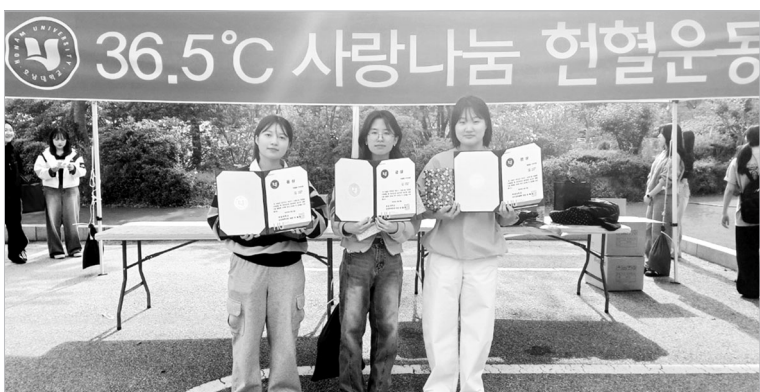
남부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위험 요소를 사전차단하고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서 재능기부 봉사

광주대학교 호심사회봉사단은 최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복지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주축이 돼 △혈당 체크 등 건강부스 △비즈 팔찌 및 키링 만들기 △나만의 부채 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했다.



호남대, 사랑 나눔 헌혈운동

호남대학교 간호학과가 최근 교내 정문 옆 자율주행시험장에서 간호학과 재학생들과 ‘36.5℃ 사랑 나눔 헌혈운동’을 진행했다. 헌혈증 17매를 기증한 박지혜 학생(간호학과 4년)이 금상을, 14매를 기증한 송지우 학생(간호학과 4년)이 은상을, 13매를 기증한 정혜영(간호학과 4년)이 동상을 수상했다.

창의 융합 과학 체험 등 110여개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교육청 주최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남 초·중·고등학교사 단체인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관한 ‘2025 전남과학축전’이 최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렸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이번 축전은 ‘천년의 역사, 미래의 과학’을 주제로, 지역의 역사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과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체험활동을 제공했다.

축전 기간 동안 △창의 융합 과학 체험 △역사와 미래교육을 결합한 인공지능(AI) 체험 △메타버스 융합체험 △과학 창의대회 등 110여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학생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틀간 참가 인원은 4만명으로 추산된



27회 ‘전남과학축전’이 최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렸다. ‘천년의 역사, 미래의 과학’을 주제로 지역의 역사성을 살린 프로그램과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체험활동이 제공됐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다. 특히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지역 특산물 체험과 조선시대 나무목을 소재로 한 ‘방탈출 게임’은 지역 특색을 과학과 결합한 창의적 시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축제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섬 지역 및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 ‘과학탐구 꾸러미’와 유튜브 생중계 서비스를 운영해 모든 학생들이 과학적 호기심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개막행사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개막식에 앞서 식전 공연으로 전남예술고등학교 이성호 학생의 하모니카 연주에 이어 은광학교 마림바 연주단의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현장에 참가한 나주초 한 학생은 “직접 실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축전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참가해 본 교육 행사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같고, 지역에서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단 발대식

전남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센터는 최근 회의실에서 전남 양성평등정책 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지정 전남양성평등센터는 2019년부터 양성평등 정책 도민 모니터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모니터단은 총 30명이 선정됐다.

발대식은 모니터단 활동 일정 안내 후 박지아 서울여성포럼 성평등센터장의 성인 지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이어졌다. 모니터

단은 5월 중 2회의 역량강화교육 후 전남 22개 시·군 홈페이지 가족 지원 정책 접근성 점검, 가족 지원 시설 모니터링, 정책 개선안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가족 지원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올해 활동이 전남의 양육 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양육친화적인 전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전남교육청, ESG 교육지도사 과정 개강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ESG 인식 확산’을 위한 ESG 교육지도사 과정 동부권 개강식을 가졌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ESG 교육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마련됐으며, 지난달 1일 목포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서부권 개강식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지역별 과정이다. 교육은 ESG 이론과 실제에 관심 있는 교육공공체 구성원에게 전문 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부권역(여수·순천·광안 등)의 학부모들이 주요 수강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2023년 교육행정에 ESG

개념을 도입한 이래 △ESG 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ESG 교육 △원격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실천 기반을 구축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남교육연수포털을 통해 교직원과 도민 대상의 ESG 교육도 확대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 공공기관 부문 ESG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서부권에 이어 동부권 학부모들에게도 ESG 전문가 양성 과정 수강 기회를 제공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ESG 가치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신보, 순천시 ‘ESG 플로깅 데이’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최근 순천시 해룡면 생태회로 일대에서 재단 임직원이 참여한 ‘ESG 함께해요! 플로깅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단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자연 생태계 보존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들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통해 순천만 국가정원과 이어지는 생태회로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강근 이사장은 “자연을 아끼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재단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신보는 올해 ‘ESG 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데 이어 ESG 실천을 위한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기관 차원의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전남경찰청, 범죄피해자 심리적 안정지원

목포스마일센터와 업무협약

전남경찰청은 최근 목포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치료 연계, 임시주거, 법률 및 사회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이다.

지난 2021년 3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심리지원 1만 992건, 임시주거 지원 4,896건, 법률지원 1,152건, 사회적 지원 1,168건 등 총 1만 8,889건의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범죄피해자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스톱킹, 가정폭력, 강력범죄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범죄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범죄피해자 조기 발굴 및 사례 연계 △전문적인 심리·상담 치료 △임시거주지 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등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피해자 조기 발굴부터 생활 안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